

現代哲學의 志向 生에서 實存의 길을 檢討함 [제2회]

金午星

다시 苦痛은 希望에로 推移되며 새로운 欲求를 喚起시킨다. 한 狀態에서 다른 狀態에로 推移된다. 온갖 心的 過程은 孤立, 分離된 要素가 아니고 精神生活의 一機能, 一動作으로서 構造的 全體의 聯關 속의 部分인 것이다. 精神生活은 한 개의 形成過程이다. 우리의 知覺, 表象은 感情, 意欲에 依해 着色되고 制約되어 있음으로, 한 心象의 運命은 感情과 意欲의 分配에 依存한다. 그런데 感情, 意欲은 不斷히 生成, 發展, 消滅한다. 나의 現在의 體驗 속에는 이런 契機를 갖고 있음으로 항상 같은 契機를 갖인 過去의 體驗과 連絡되어 있으며, 또 이런 모든 契機는 우리를 未來에로 引導하게 된다. 現在의 體驗이 記憶 속으로 또는 希望, 期待, 配慮, 欲求에로 關係될 때 우리는 後方(過去) 또는 前方(未來)에로 끌리운다. 이 牽引에서 現前性 範疇가 생긴다. 즉 過去와 未來의 牽引에서 現在를 充實하려는 것이다. 體驗은 한 개의 動的 統一이다. 單히 現在가 아니라, 現在의 意識 속에 過去와 未來를 품고 있는 것이 現在의 體驗이다. 이것이 生의 時間性이다.

그런데, 우리의 體驗이 現在에 充實해 있을 때, 우리는 現在의 積極的 乃至 消極的인 價値를 感情으로 經驗한다. 여기서 價値(意味)란 範疇가 생긴다. 허나 體驗이 現在에 滿足치 안코 未來에 向할 때 여기서 目的이란 範疇가 생긴다. 生의 現在는 過去에 依해서 充實되어 있으며 未來에의 欲求를 품고 있다. 그러나 生의 過程에는 合目的性이 內在한다. 生의 合目的 過程에서 發展이란 範疇가 생긴다.

生의 第二의 契機는 表現이다. 體驗이 生의 內化라면 表現은 生의 外化, 즉 客觀化이다. 生은 無限히 自己를 內化시키는 同時에 또한 無限히 自己를 外化시키는 傾向을 갖고 있다. 우리와는 因緣조차 없어 보이는 外物도 體驗 속에 끄러드릴 可能性을 갖인 同時, 또한 意識의 陽光이 빛이지 못할 奧部까지도 나타낼 可能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生은 精神, 物理의 統一이다. 사람들

은 精神과 物理를 分離시켜 보는 習慣을 갖고 있으나, 生의 基本事實에 있어는 아무런 分離도 없다. 兩者는 生生한 □□關係에 잇는 것이다. 生은 항상 몸짓, 表情, 言語로서 自己를 表現한다. 體驗된 것은 □表現되지 안고는 □이지 못한다. 그런데 生은 單히 精神이 아니라 同時에 身體이므로, 生의 基本構造는 人間과 環境과의 作用聯關인 것이니, 여기서 生의 表現은 特□한 形態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精神生活은 生의 環境에 制約되며 反對로 環境에 作用하는 內的 編制다. 人間은 自然의 支配를 免할 수 없다. 個人의 發展, 人類의 運命, 自然的 諸條件에 制約되어 잇는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自己를 制約하는 自然은 自己네의 모든 目的을 成就하는 手段의 體系로서 찾이게 된다. 제 아무리 卓越한 精神의 創造力도 自然을 手段의 體系로서 그 □□을 빌지 안고는 自己의 目的을 成就하지 못한다.

各 個人의 自然을 媒介로 한 精神的 作用은 그것이 □□혀 僅少한 것도 決코 滅却되지 안는다. 個人의 持續的인 作用에서 생기는 事實은 한 개의 恒久狀態로서 保存된다. 따라서 이러한 持續的인 作用이 차츰 個人과 個人과의 心的 關係를 일러 좋게 되며, 그리하여 마침내 한 개의 目的聯關에 結合된다. 藝術, 學問, 宗教 등의 “文化의 諸體系”는 正히 이러한 個人과 個人과의 目的聯關으로서 產出된 것이다. 그리고 個人과 個人과의 目的과 意志를 한 개의 全體的 拘束에 結合시키는 데서 國家, 教會, 家族 등의 “外的 組織”이 생긴다. 딜타이는 이 ”文化 諸體系“와 “外的 組織”을 總稱하여 “歷史的, 社會的 實在”라 했다. 이 實在는 精神生活의 表現이며, 生의 客觀化다. 그러나 個人의 生의 舞臺에서 나타났다 꺼지는 反對로, “歷史的 社會的 實在”는 持續的으로 存立한다. 各 時代의 人間性的 富는 여기에 注入된다. 歷史的, 社會的 實在는 自然과는 다르다. 自然은 우리에게 對하여 沈默한다. 그러나 歷史的, 社會的 實在는 우리의 全本質의 힘에 依해서 生生하게 그러나 不安스럽게 體驗된다. 그것은 그 實在의 體系를 만들어낸 모든 힘이 우리 自身 속에도 잇는 때문인 것이다. 우리와 歷史와는 가장 密接히, 또는 힘차게 作用聯關을 계속하고 잇다. 우리는 造形美術, 物語, 詩, 歷史敍述, 學問 등의 文化 諸關係의 품속에 안겨어 休憩하며, 成長하며 또 不斷히 自己를 形成하고 잇는 것이다.